

한우

한우자조금, '대한민국 8강 기원, 한우 먹고 응원하자!' 행사 열어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가 온라인 직거래장터인 한우 114 할인몰 오픈 기념 맞이 특이이벤트에 맞춰 6월 10일(화)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대한민국 원정 8강 기원, 우리 한우 먹고 으샤으샤!'라는 주제로 행사를 진행했다. 한우자조금은 '한우 할인몰' 오픈을 기념하여 6월 9일(월)부터 특가할인이벤트를 진행했다. 요

일별로 매일 다른 부위의 한우를 평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50명에게 판매했고, 특히 이번 이벤트는 원정 8강을 응원하는 국민들에게 저렴한 한우를 제공해 힘내서 응원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한우 할인몰'은 생산자에서 소비자까지 최대 7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과정을 대폭 축소하고 산지 직접 배송 등으로 유통마진을 줄여 소비자들에게 질 좋고 저렴한 한우를 제공하고자 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이 외에도 한우자조금은 소비자들의 한우사랑에 보답하고자 '한우특가데이'를 정해 특정일을 지정한 가격할인은 물론 무료배송, 1+1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우 114(www.hanwoo114.co.kr)를 참고하면 된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 홍보마케팅부 서정훈 팀장은 "온라인직거래 장터인 한우 할인몰이 올해 들어 계속 치솟고 있는 고기 값으로 걱정하는 소비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길 바란다"며 "한우 할인몰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우리 한우를 드시고 즐겁게 원정 8강을 위한 힘찬 응원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돈

한돈산업 번영기원 '제주 한돈 도새기 조형물 제막식'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공동의장 김성진, 이창림)와 함께 6월 12일 제주도 신비의 도로(일명 '도깨비 도로')에서 '제주 한돈 도새기 조형물 제막식'을 진행했다. 도새기는 돼지를 일컫는 제주 방언으로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는 제주 대표 특



산물인 돼지의 우수성을 알리는 한편 한돈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 제고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기원하며 '제주 한돈 도새기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설명했다.

한돈자조금은 '한돈 도새기 조형물'과 함께 '福돼지 소원함'도 함께 설치했다. 소원함은 풍요, 건강, 다산을 상징하는 돼지에게 소원을 빌고, 소외된 이웃과도 복을 나누자는 의미에서 설치됐다. 한돈자조금은 소원함을 통해 모인 기금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한돈자조금 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은 "제주 청정지역에서 자란 제주 한돈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소비자들로부터도 호평 받고 있다"며 "제주 한돈 산업이 천혜자연이 어우러진 제주 관광산업과 함께 지속적으로 발전하며 연간 천 만명이 방문하는 신비의 도로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제주 한돈 도새기 조형물이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제막식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우근민 도지사를 비롯해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이병규 위원장, 김성진 제주양돈산업발전협의회장 등 약 250명의 내빈이 참석하며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 제막식에 앞서 사전행사로 참석자를 위한 한돈 시식행사가 진행됐으며, 한돈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福을나누는 돼지' 온라인 이벤트도 함께 진행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www.facebook.com/wellbeinghandon에서 확인할 수 있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4. 06. 12]

양계

계육협회, 닭고기자조금사업 참여 의사 밝혀... 사업 재개 전망

닭고기자조금 사업이 단체간 갈등을 해결하고 정상화될 전망이다.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등 닭고기자조금 사업 참여 축산단체들은 지난 5월 19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닭고기자조금사업 활성화를 위한 축산단체장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 동안 대의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며 사실상 보이콧을 선언했던 계육협회가 자조금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계육협회는 그 동안 닭고기산업은 계열화사업의 참여율이 90%를 넘고 지난해 자조금 조성액 중 90%가 넘는 금액을 협회가 거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 선출에 실 부담자들이 도외시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비례원칙과 형평성에 맞게 대의원 80명 중 절반수준의 대의원 수를 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자조금 사업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을 밝힘에 따라 그 동안 농축산부의 예산승인을 받지 못해 집행하지 못했던 자조금 사업도 다시 추진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닭고기자조금사업 참여 단체들은 추후 실무자 회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일단 계육협회와 토종닭협회에서 같이 사업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자세한 내용은 실무자회의를 거쳐 확정될 것”이라며 “그동안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던 자조금 사업이 빨리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닭고기자조금관리위원장 선출과 관련하여 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선출시 계육협회의 목소리도 최대한 반영되게끔 법 테두리 안에서 공정하게 선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축산신문 [2014. 05. 26]

낙농
우유

우유자조금, 파리바게뜨와 '행복한 우유 협약식' 개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손정렬)는 (주)파리크라상의 대표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와 6월 11일 파리바게뜨 카페강남역점에서 '국산우유 소비 활성화 및 상생을 위한 행복한 우유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본 협약식을 통해 파리바게뜨에서는 국산우유 연간 사용량을 2020년까지 100%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우유소비 정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가들에게 큰 힘이 될 것

으로 기대된다. 본 협약식에서 손정렬 우유자조금관리위원장은 “(주)파리크라상의 대표 브랜드인 파리바게뜨에서 국산우유를 활용한 각종 제품들이 출시되는 것은 우리 전국 6,000여 낙농인들을 대표해서 감사할 일이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협약을 통해 상생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

파리바게뜨에서 2014년 상반기에 새롭게 출시한 우유관련 제품은 10여 종에 이른다. 특히, 올봄 출시한 ‘순수(秀)우유케이크’는 우유함량을 73%까지 높인 제품으로 10년만에 치즈케이크를 제치고 판매 1위에 오르며 인기 제품으로 등극한 바 있다. 그 외 우유얼음을 사용한 ‘눈송이 우유빙수’, ‘목장의 신선한 정통우유식빵’, ‘순수(秀)우유 오!케익’과 같은 다양한 베이커리에서 아이스바까지 국산우유를 적용한 다양한 제품을 선보였다. 파리바게뜨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산 우유를 활용한 고품질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파리바게뜨는 저소득층 어린이를 위한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의 우유보내기 운동 등에 적극 참여할 예정이다.

라이브뉴스 광동신 기자 [2014. 06. 11]

양봉

청송 양봉농가 “봉독이 효자품목”

벌꿀생산에만 의존해 오던 양봉농가에 봉독생산기술이 보급되면서 소득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는 6월 12일 청송군 진보면 신촌리에서 양봉농가 및 봉독생산기술 시범농가 등이 참가한 가운데 봉독생산 기술 현장교육을 실시했다. 지금까지 양봉농가는 벌꿀 생산 외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청송군농업기술센터의 봉독생산기술 보급으로 양봉농가에선 꿀생산이 끝난 이후 6~9월까지 봉독 생산에 들어가 새로운 소득을 창출하고 있다. 현재 청송지역에서 20여 농가가 봉독을 생산하고 있다. 봉독은 g당 8만원의 높은 가격에 판매할 수 있고, 봉독 수요가 늘어나는 추세여서 봉독을 생산하는 농가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준 청송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천연항생제인 봉독은 항균, 항염작용 및 세포재생력 촉진 등에 효과가 있어 가축용 항생제와 화장품의 원료 등으로 쓰인다. 양봉농가의 새로운 소득 창출원인 만큼, 기술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일보 [2014. 06. 14]